



2026. 8. 25 (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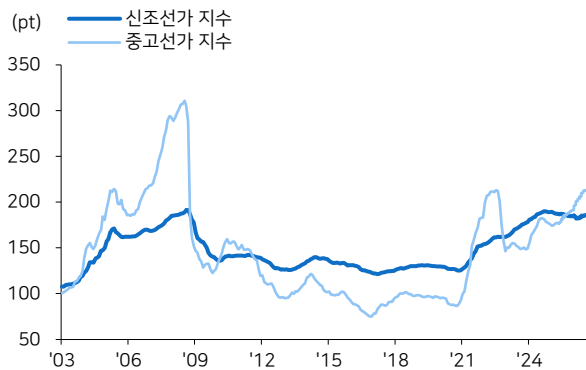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6.3p (+0.6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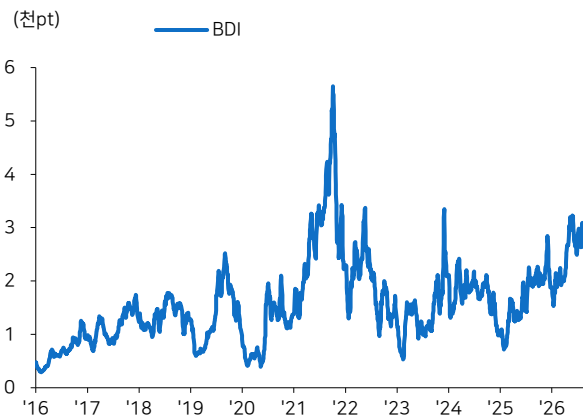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1.0달러 (+6.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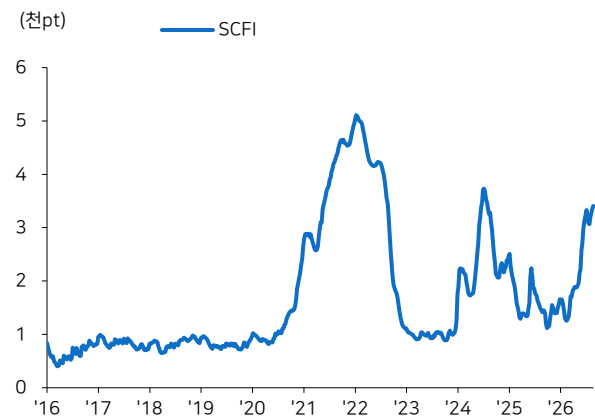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841.0p (+65.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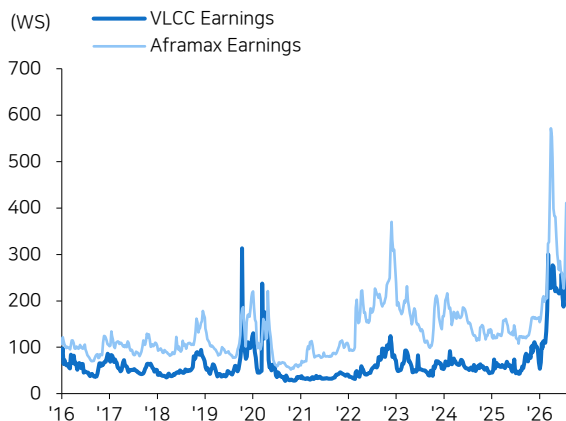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409.6 (+54.4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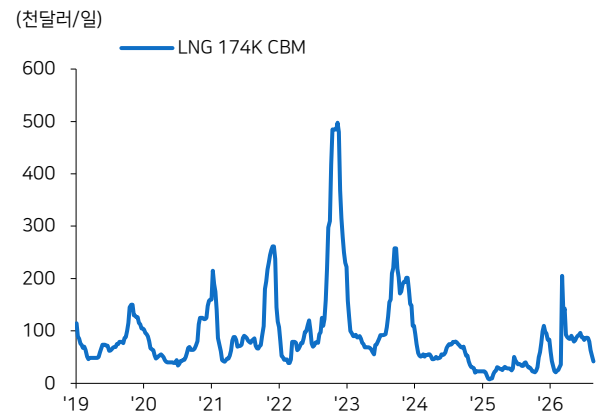
VLCC Spot Rate

403.9WS (+124.6p WoW)



LNG Spot 운임

42.0천달러 (-11.3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Pasco Gas linked to order for large LPG carriers at HD Hyundai (TradeWinds)

<https://zrr.kr/hF20jj>

튀르키예 선사 Pasco Gas가 약 2년 만에 HD현대로 복귀해 6만㎥급 LGC 4척을 발주했으며, 계약 규모는 5,154억 원(척당 약 9,250만 달러), 인도는 2030년 상반기로 예정된다고 보도됨. 이번 선박은 남미 및 대서양 항로의 LPG 운송뿐 아니라 장거리 암모니아 운송에도 활용 가능한 LGC로, Pasco Gas는 기존 1척이던 LGC 선대를 확대하며 가스선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짐.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누적 162척·180.8억 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의 77.6%를 달성했으며, 이 가운데 LPG·암모니아 운반선 50척을 확보했다고 전해짐.

HD 현대중공업 노사, 최종 조정 결렬...파업 전문 '고조' (서울경제)

<https://zrr.kr/6HUcTn>

HD현대중공업 노사가 2026년 임금협상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중지됐고,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고 보도됨. 양측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상과 관련한 2차 조정회의를 벌였으나, 회의가 교착 상태를 이어가자 중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고 전해짐. 조정이 중지되면서 HD현대중공업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으며, 노조는 25~27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 알려짐.

'현지 생산' 키우는 HD 현대...印 대형 조선소美 인수 카드 (데일리안)

<https://zrr.kr/ORItc4>

HD현대가 해외 생산거점 확대 전략에 속도를 내며, 인도에서는 투투쿠디 신규 조선소 건설을 추진하고 미국에서는 현지 조선소 인수 및 지분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됨. 인도 코친조선소와의 블록공장 합작법인 설립은 중단됐으나, LNG 추진 컨테이너선 핵심 기자재 공급과 설계·구매 지원 등 기술 협력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알려짐. 미국에서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연계해 현지 생산기 지 확보를 추진하며, HII와의 기술 협력에서 나아가 미 해군 함정 시장 진출을 위한 조선소 인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해짐.

한화오션, 경남서 키운 MRO 역량 제주에 이식...근접지원형 사업 '시동' (뉴시스)

<https://zrr.kr/rDEGtl>

한화오션이 경남 거제의 MRO 역량을 기반으로 제주에서 근접지원형 해양 MRO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제주대를 비롯한 지역 기관과 협력해 제주 MRO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고 알려짐. 제주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함정과 KDX-II급 구축함을 대상으로 지역 단위 MRO 민영화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한화오션은 거제사업장의 친환경 정비 공정과 스마트 기술을 제주 거점과 실시간 연계하는 원격 지원 체계 구축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짐. 한화오션은 경남에서 축적한 한국·미국 해군 MRO 수행 경험을 허브로 활용해 제주를 시작으로 국내 주요 지역에 맞춤형 근접지원 MRO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일본 9조원 쏟는 조선 재건, 인력난에 한국 반사이익 기대 (글로벌이코노믹)

<https://zrr.kr/m8NKAg>

일본 정부가 조선업 재건을 위해 2035년까지 65억 달러(약 9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추진하며, LNG 운반선 생산 재개와 생산능력 2배 확대를 추진한다고 전해짐. 나무라조선소는 신규 대형 드라이도크를 건설하고 이마바리조선·가와사키중공업과 연간 LNG선 3~5척 생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나, 군함 건조 확대와 숙련 인력 부족으로 올해 일본 조선 수주량은 15% 감소했다고 알려짐. 업계에서는 일본의 생산 병목이 단기적으로 한국 조선사의 LNG선 수주 경쟁력과 미 해군 MRO 기회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자동화와 해외 인력 확보 여부가 중장기 경쟁 구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전해짐.

'Who's going to secure it?' Protection key for new Middle East projects (Upstream)

<https://zrr.kr/BMuPZW>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대응해 중동 산유국들이 우회 수출 인프라를 추진하고 있으나, 새 파이프라인과 에너지 시설의 안보 보호 체계가 최대 과제로 전해짐. ADNOC는 오만만 루자이라를 통한 원유 수출 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이라크도 시리아·튀르키예 경유 대체 송유관을 모색 중이지만, 국경을 넘는 파이프라인은 협상과 구축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보도됨. 또한 파이프라인보다 아시아 인근 저장시설 확대가 단기적으로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미국이 중동 에너지 인프라 보호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여할지가 핵심 변수라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